

“다 내 탓이오...”

초라한 성적표 홍명보 감독...3차례 평가전 1승 2패

골 결정력 빈곤·수비 움직임 둔탁...1득점 6실점 출전

기성용 등 해외파 활약은 위안...3월 그리스와 평가전

월드컵 축구대회 사상 최초의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약 3주간 이어진 전지훈련 일정을 모두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달 13일 브라질 포즈 도 이구아수를 향해 출발, 약 1주일간 월드컵 본선에서 베이스캠프를 차릴 이구아수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이후 같은달 22일 장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대표팀은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에 이어 2월 2일 미국까지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이번 전지훈련의 성과를 시험했다.

홍명보 감독은 2일 미국과의 경기를 마친 뒤 “많은 것을 얻었다”며 “월드컵 본선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후 기간에도 “브라질 훈련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선수들이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는 등 훈련과정에 대해

만족감을 몇 차례 나타냈다.

세 차례 평가전에서 1승2패에 그쳤고 특히 멕시코, 미국과의 2, 3차전을 하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려 여섯 골이나 내주는 졸전을 펼친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감탄 것도 훈련 과정에 홍 감독 나름대로 만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고 끝까지 투혼을 불사랐다”며 “결과에 대한 비난은 감독인 저의 몫”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이번 대표팀 선수들이 시즌이 끝난 지 1~2개월 후라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전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공격에서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빈곤을 드러냈고 주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 골키퍼 김승규(울산)와 정성룡(수원)도 나란히 경기당 2실점이라는 결과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중원에서 번갈아 뛰 박종우(부산), 이명주(포항), 이호(상주)도 이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수비라인 역시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오히려 유럽 등 해외에서 활약중인 ‘해외파’들의 활약과 이적 소식이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전망을 밝게 해주는 활력소가 됐다.

박주영이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왓포드로 이적해 경기 출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마인츠)도 이적 후 나란히 골까지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손흥민(레버쿠젠), 기성용(선덜랜드) 등이 최근 소속팀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다 카타르 리그의 남태희(레키아)도 4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벌이고 있다. 수비수 박주호(마인츠)도 2일 중거리포로 골 맛을 보는 등 해외파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내는 모양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예정된 그리스와의 평가전(3월 6일 오전 2시) 일정에 맞춰 3월 초에 재소집된다.

/연합뉴스



“환영합니다” 2일(한국시간)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에서 화려한 불꽃이 올림픽 파크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22회째를 맞는 소치 올림픽은 오는 7일(현지시간) 개막해 23일까지 17일간 열전을 펼친다. /연합뉴스

‘코리아 군단’ 결전의 땅 입성

소치올림픽 선수단, 톱 10 목표 종목별 첫 적응훈련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코리아’의 명성을 다시 한번 드높일 태극전사들이 마침내 결전지에 도착했다.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단은 지난 1일(한국시간) 전세기를 타고 러시아 소치 아틀레트 공원에 내렸다.

선수단장인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18명과 스키 14명, 봅슬레이·스켈레톤 15명, 컬링 7명, 루지 5명,

바이애슬론 3명, 스피드스케이팅 2명 등 64명이 동시에 소치 땅을 밟았다.

김재열 단장은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치고 건강히 귀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인 소치 대회에는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등 7개 종목(15개 세부 종목)에서 총 9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71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알파인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각각 5명, 스키 점프와 스노보드에서 각각 4명, 크로스컨트리에서 2명 등 스키 종목에서만 가장 많은 20명이 출전권을 획득했다. 15명이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이 그 다음으로 많다. 쇼트트랙과 봅슬레이에서 각각 10명, 컬링 5명, 루지 4명, 피겨 3명, 바이애슬론과 스켈레톤에서

2명씩이 소치 올림픽에 나선다.

출전 선수가 늘다 보니 전체 선수단도 임원 49명을 포함해 총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세 대회 연속으로 종합 10위 이내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메달을 따기 어려운 종목에서도 희망적인 성적을 거둬 4년 뒤 안방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아우르는 진정한 겨울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도착한 선수들은 종목별로 이미 시작된 공식 훈련에 참가해 현지 적응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출국해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전지훈련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1일과 2일 등 두 번에 걸쳐 소치에 입성했다.

지난달 22일부터 해발 1800m대 고지의 프랑스 폰트 로뮤에서 ‘금빛 담금질’을 하고 있는 쇼트트랙 선수단은 5일 소치로 이동한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를 비롯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오는 12일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창·방패 무장 ‘광주FC’

브라질 공격수 이어 수비·골키퍼 영입

광주 FC가 ‘철벽 수비’를 위해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정준영과 골키퍼 류원우를 임대 영입했다.



정준영

류원우

정준영(26)은 전남 산하 청소년팀인 광양제철고를 거쳐 2008년 전남 유니폼을 입었으며, 6시즌 동안 82경기에서 1득점 4도움을 기록했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정준영은 2008-2010년 U-20 대표팀으로 활약했으며 전남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주전경쟁을 벌였다. 뛰어난 패싱력과 지능적인 플레이를 겸비한 풀백이라는 평가다.

류원우 역시 광주남초를 거쳐 광양제철중-고를 졸업한 전남 유소년 출신으로 2009년 프로에 진출했다. 이운재의 높은 벽에 막혀 2011년까지 1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2012·2013시즌 10경기에 나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순발력과 위치선정이 장점으로 백민철의 백업요원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어울기자 wool@

일본서 옥석 가리기

광주 FC, 28일까지 시즈오카 전후

광주 FC가 일본 시즈오카에서 2014시즌을 겨냥한다. K리그 챔피언의 광주가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3일 시즈오카로 출국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도키노스미카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동계 훈련은 체력강화, 실전훈련, 조직력 다지기 위주로 오는 28일까지 26일간 계속된다.

광주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1부 승격이라는 목표를 속도를 내게 된다. 10차례 이상 연습경기를 갖고 본격적인 전술 시험에 나서고 우승을 향해 달릴 베스트 11도 가릴 예정이다.

일본 전지훈련에 앞서 광주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28인의 선수단을 구성했다. 2일 전남에서 정준영(DF)과 류원우(GK)를 임대 영입하면서 선수단 구성은 완료됐다. 포용력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 수비수 이완을 신임 주장으로 해 선수단 소통도 강화했다.

광주와 광양에서의 훈련을 통해 전력의 큰 틀은 잡혔다.

1월3일 체력훈련을 시작으로 올 시즌 일정에 돌입했던 광주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광양에서 손발을 맞추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섰다. 특히 5차례에 걸친 연습경기(4승1무)를 통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불을 붙였다.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1대1 능력이 돋보이는 김민수가 4골을 넣으며 연습경기 득점왕에 올라 있고, 손승민(3득점), 김우철·김호남·권수현·임선영(이하 2득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움 부분에서는 김민수, 안종훈, 이종민, 김호남이 2도움씩을 기록했다.

올 시즌 선수단을 이끌 주장이완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땀 흘릴 때 문에 어색함 보다 활기가 넘친다”며 “중간의 입장에서 선구자들이 땀 흘릴 수 있는 윤활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경험 많은 선수들인만큼 체력과 전술 이해도가 높다. 일본 전후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마무리 전술을 가다듬어 광주만의 공격축구를 완성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어울기자 wool@